



국내 프로야구가 4월 2일 개막전을 통해 팬들과 다시 만난다. 3년만의 개막전 100% 관중 입장으로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할 올 시즌 프로야구는 김광현(SSG)과 양현준(KIA)의 국내 복귀, 이대호(롯데)의 은퇴투어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스포츠동아DB

“올 시즌 우승팀은?” 야구 해설위원 10인에 물었다

“디펜딩챔프 KT 우승” 8명 압도적

“선발진 안정…박병호 합류로 전력 더 강해져
시범경기 1위 LG·김광현 복귀한 SSG 대항마”

스포츠동아는 4월 2일 개막하는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정규시즌에 앞서 해설위원 1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정규시즌-한국시리즈(KS) 통합우승을 달성한 KT 위즈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 전망이 압도적이었고, 대부분이 KT와 LG 트윈스의 KS 격돌을 예상했다.

이번 설문에는 장성호, 박용택, 유희관(이상 KBSN스포츠), 이순철, 이종열, 이승엽(이상 SBS스포츠), 심재학, 박재홍(이상 MBC스포츠+), 양상문, 김재현(이상 SPOTV) 해설위원이 참여했다.

●8명이 짚한 KT, 올해도 우승?

KT는 지난해 투타의 완벽한 밸런스를 앞세워 창단 첫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유한준의 은퇴 등을 제외하면 전력 누수가 크지 않아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프리에이전트(FA) 박병호의 가세로 전력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순철 위원과 양상문 위원은 “KT는 선발 전력이 가장 안정적인 팀이고, 박병호의 합류로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과 공격력을 보강했다”고 입을 모았다. 유희관 위원은 “지난해 통합우승으로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다. 부상 없이 선발진이 돌아가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밝혔다.

●LG-SSG, 가장 강력한 대항마?

다른 의견도 있었다. KT를 택하지 않은 2명의 해설위원은 각각 LG와 SSG 랜더스를 꼽았다. LG는 강력한 마운드를 앞세워 시범경기 1위(8승3무2패)에 올랐다. SSG는 김광현의 복귀로 초호화 선발진을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있다. 장성호 위원은 “LG는 야수진에 손을 댈 부분이 없고, 신구조화도 완벽하다. 10개 구단 중 팀스가 가장 두껍다”, 이승엽 위원은 “박재민이 기동력이 LG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재현 위원은 “SSG는 김광현이 돌아와서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KS 매치업은 KT-LG?

8명이 KT와 LG가 KS에서 만날 것으로 내다봤다. KT-SSG, SSG-LG의 매치업을 점친 이도 있었다. 박용택 위원은 “결국 야구는 투수놀이이다. KT는 7선발까지 준비할 수 있는 투수력이 강점이다. LG도 국내투수들의 역할이 큰 팀”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열 위원은 “올해도 투수력이 좋은 팀들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순철 위원은 “SSG는 문승원과 박종훈이 언제 돌아와서 힘을 보탤 수 있는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4편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현빈♥손예진 ‘결혼 잭팟’

부부가 된 두 톱스타, 한류파워·시너지도 대박

‘사랑의 불시착’ 아시아·日 한류 주도
현빈, 中 무대 새영화 ‘하얼빈’도 주목
中 웨이보도 메인창에 결혼 소식 띄워
한한령 해제편 최대 수혜자 부상 가능

‘결혼의 행복한 새 출발, 이제 한류 시너지로 이어간다.’ 동갑내기 톱스타 커플 현빈(40)·손예진이 3월의 마지막 날 결혼하면서 두 사람이 이후 일궈낼 한류 시너지에 대한 국내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관측이 조짐에 제기되는 가운데 그동안 한류스타의 위상을 다져온 두 사람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한류 불 지핀 ‘사랑의 불시착’

이는 현빈과 손예진이 주연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힘에서부터 나온다. 드라마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0%대(닐슨코리아) 시청률로 국내 인기를 모았다. 두 사람은 이를 무대로 사랑의 결실을 맺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동남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특히 2020년 일본 한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여전한 일본 넷플릭스 ‘많이 본 TV 쇼(프로그램)’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올해 2월 초에는 5위권에 재진입하기도 했다.

●한류 시너지, 중국에서부터
손예진은 2018년 정해인과 주

연한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3월3일 중국 최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아이치이에서 공개했다. 2016년 한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으로 본격화한 중국의 한한령 규제 이후 현지 정식 방영한 첫 한국드라마이다. 손예진은 중국에서도 명성을 재확인하며 아이치이의 급상승 차트 1위에 드라마를 올려놓았다.

현빈에 대한 관심도 손예진 못지않다. 중국의 SNS인 웨이보가 손예진과 결혼 소식을 메인 창에 띄울 만큼 현지 팬들의 관심 속에 중국을 주 무대로 하는 새 영화 ‘하얼빈’으로도 큰 기대를 모은다.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내거는 독립투사의 이야기로, 현빈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촬영에 나섰다.

올해 개봉할 두 편의 영화에도 아시아권의 관심이 쏠린다. 황정민과 함께 주연한 ‘교섭’을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태국 등 아시아 14개국에 선 판매했다. 영화계는 유해진과 콤비 호흡을 맞춘 ‘공조2:인터내셔널’을 향한 해외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 관련기사 2편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 조특급 한류스타 부부가 탄생했다. 현빈과 손예진이 3월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히 호텔 애스턴하우스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의 축복 속에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다. 사진제공 | VAST엔터테인먼트

1000만원어치 야구용품 타기 쿼즈 ▶9면

■ 참가자격 및 조건

제과제빵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학생 대상으로
마스터 플레이버 20'를 활용한 작품 한정 (구매 인증 필요)

■ 공모 부문

나만의 제과제빵 레시피
- 1인 3점 출품 가능
- 작품은 제품명, 레시피, 제품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로 제출

■ 접수 기간

예선) 2022년 4월 1일(금) ~ 5월 31일(화)까지
결선) 2022년 6월 8일(수) ~ 6월 30일(목)까지

■ 관련 문의

010-8536-1879 / csfkang@csfood.com / www.mgfoodis.com

- 시상내역 - 총 상금 규모 1,200만원 상당
 - 예선 (10명) : 30만원 (결선 출품 재료비 지원금)
 - 대상 (1명)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및 1879쿡스 50만원 상당 제공, 희망시 입사 특전 제공, 제품 개발 시 수익 웨어 제공
 - 금상 (1명)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및 1879쿡스 50만원 상당 제공, 희망시 입사 특전 제공, 제품 개발 시 수익 웨어 제공
 - 동상 (8명) : 상패 및 1879쿡스 20만원 상당



총 상금 규모 1,200만원 상당

나만의 제과제빵 레시피 공모전

‘제빵왕 김락구’를 찾아라!



“마스터 플레이버 20을 소개합니다.”

소비자 선호 제과, 제빵 판매 순위 TOP20
비법을 향료 키트 하나에 담았습니다.

- 고열 등 약조건에도 최고의 품미 제공
- 글로벌 향료 전문기업의 조향 기술력
- 대형 프랜차이즈의 품미 그대로 구현
- 향료 전용 용기로 장기 보관 가능
- 스포이드 부착으로 위생적 으로 사용
-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50g 으로 용량 업그레이드
- 구입문의 : 031.735.1879



구입방법 www.mgfoodis.com